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만열



초등학교 때 6.25로 집과 동네가 불타버리고 또 길가에서 주검을 본이래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내 학문과 삶을 지배해 왔다. 남북분단이 일제가 남긴 식민지 잔재로 6.25가 남북분단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은 이래 민족의 자주독립통일을 위한 기도를 그친 적이 없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예언서 앞에 동의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열조의 범죄와 우리 시대의 죄악을 응시해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철이 들고 난 뒤 민족통일과 북한동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2001년 북한을 처음 방문하고 그들의 삶을 직접 살펴본 이후 그 기도는 더 구체화되었다. 북한을 위한 기도는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 달라는 대목에서 시작된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느낀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북한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북한의 제반 문제는 당이나

몇 사람의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민 전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민 전체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해결의 주역으로 나설 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인민을 위한 진정한 주체사상이 되려면 전 인민이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나서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그 동안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 창의성의 문제를 두고 북한 내부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것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관점에서 그들의 자유와 인권, 창의성을 논한다면 문제시할 것이 별로 없고 외부에서 시비할 근거도 없게 된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 창의성의 문제는 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규정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계의 보편

북한을 위한 기도

회 같으면 정권이나 내각이 몇 번이나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가 인민의 굶주림이 책임을 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에 북핵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물론 북핵 문제에 얽혀있는 여러 나라와의 이해관계의 평화적인 조정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 개방을 서두르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북한 핵심층의 결과 안보리 결의안인

경제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북한 동포들이 더 이상 굶주림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도한다. 경제 제재가 심해지면, 자체 생산으로는 거의 3분의 2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북한의 식량문제는 동포들의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으로부터 종종 듣는 것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외부의 지원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식량 위기를 넘기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북핵 위기가 북한 동포들의 식량 위기를 더 증가시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그 동안 기도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감당하려고 노력했다.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북한의 식자들과는 때로는 얼굴 붉힐 정도의 토론도 벌였으며, 북한 동포 지원을 위해서 돕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생애에 성취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기도의 동지들이 늘어났으면 한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역사를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도는 현재 보지는 못하고 바라기만 하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촉진시키는 침정이라고 믿는다.

회 같으면 정권이나 내각이 몇 번이나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가 인민의 굶주림이 책임을 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에 북핵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물론 북핵 문제에 얽혀있는 여러 나라와의 이해관계의 평화적인 조정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 개방을 서두르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북한 핵심층의 결과 안보리 결의안인

경제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북한 동포들이 더 이상 굶주림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도한다. 경제 제재가 심해지면, 자체 생산으로는 거의 3분의 2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북한의 식량문제는 동포들의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으로부터 종종 듣는 것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외부의 지원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식량 위기를 넘기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북핵 위기가 북한 동포들의 식량 위기를 더 증가시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그 동안 기도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감당하려고 노력했다.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북한의 식자들과는 때로는 얼굴 붉힐 정도의 토론도 벌였으며, 북한 동포 지원을 위해서 돕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생애에 성취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기도의 동지들이 늘어났으면 한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역사를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도는 현재 보지는 못하고 바라기만 하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촉진시키는 침정이라고 믿는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에 바란다

민선 제4대 광주시 교육감에 안순일 광주시 동부교육장이 당선됐다. 안 당선자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 교육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우리는 안 당선자에게 축하와 함께 광주교육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약속했던 청사진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한다. 광주 교육계는 몇 년 새 각종 비리와 부정에 휩싸여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비방과 고발, 편 가르기, 금품수수 의혹 등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한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교육계의 내분은 더욱 깊어졌다. 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안 당선자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사분오열된 광주 교육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혼란과 내분을 당장 수습하지 않고는 땅에 떨어진 광주 교육의 위상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 당선자는 일선 교사와 지역민의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공행식 인사나 제 식구 감싸기, 눈치보기 행정 등 광주 교육계에 만연된 구태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먼저 청렴성과 개혁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새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과 학교시설 개선, 공·사립 간 학력격차 해소 등에 힘써 '실력 광주'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 교육계는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 수장이 몇몇 측근 등의 인의 장막에 갇혀 있어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안 당선자는 일선교사와 교육단체, 그리고 지역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 안 당선자가 앞으로 4년 간 정도와 원칙에 입각해 광주교육을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해 본다.

3분기 경제성장률 0.9%... 불황 조짐인가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6년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에 그치면서 2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민간경제연구소들 중심으로 불황 조짐이 나타난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소비저출이다. 민간소비저출은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 증가와 건설 투자는 회복 조짐을 보이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대기업의 첨단업종에 편중됐고 건설투자는 수해복구를 위한 도로 정비사업도 모자 모교와 후배들을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창회가 참입되었다고 보인다. 상호부조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동창회는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닐까요? 물론 동창회의 폐해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서울대학교나 부산고동창회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6년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에 그치면서 2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민간경제연구소들 중심으로 불황 조짐이 나타난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소비저출이다. 민간소비저출은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 증가와 건설 투자는 회복 조짐을 보이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대기업의 첨단업종에 편중됐고 건설투자는 수해복구를 위한 도로 정비사업도 모자 모교와 후배들을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창회가 참입되었다고 보인다. 상호부조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동창회는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닐까요? 물론 동창회의 폐해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서울대학교나 부산고동창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안준기



예측 가능한 경제의 결핍들로 작용하는 석유 등 화석연료 대신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무한자원인 태양광, 수소,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또 세계협약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규모 저감 대응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환경보전을 위한 고품격 이미지를 갖는 무한한 청정에너지이기에 에너지 선진국은 자원이 아닌 산업개념으로 꾸준한 투자를 하여 90년대 이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성숙기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신재생에너지 11개 분야를 지정하여 장려하였고, 2000

바이오에너지설비 5 MW, 소수력 8.2 MW가 운영되고 있으며, 무안 풍력발전단지에도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화석에너지 고갈로 석유제품 시대에 대비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에너지 관련 설비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중소기업육성, 다양한 에너지원 분산 및 확보에 좋은 기회이다. 국가에서는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까지 총 발전량 기준 7.0% 목표를 설정, 설비투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발전장려 지원제도,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을 위한 설치비 70%지원사업, 인종제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유회사들이 석유사업 대

광주일보를 읽고

24일 다산포럼 '동창회는 무슨 일을 ...?'에 대한 반론

- 최희동

안 교수님! 광주일보 10월 24일자 19면 '동창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실린 교수님의 글을 읽고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나라의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교수님의 글을 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창회에 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는 동창회 사무실도 없으며, '재경(在京)'이라는 지시어를 단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표현에는 경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동창회는 창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들의 친목도모는 그 다음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에 동창회가 생긴 시점이 6.25전쟁 전후라는 점을 볼 때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 시절 임시일반 조그만 정성이라도 모아 모교와 후배들을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창회가 참입되었다고 보인다. 상호부조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동창회는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닐까요? 물론 동창회의 폐해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서울대학교나 부산고동창회

동창회는 필요합니다

악을 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졸업한 부산고동창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대학교총 동창회는 상근직원만 해도 20명이 넘고 회보편집을 위한 논설위원만 해도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동문들이 지금까지 학교에 낸 발전기금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발전기금도 350억원입니다. 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대학교의 총동창회 사무실은 학교 내에 없습니다. 아마 학교 내에 사무실이 있는 동창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창회가 학교를 도우려는 단체이지 학교의 도움을 받으려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이 학교 안에 없다고 동창회가 학교의 발전과 그만큼 거리가 먼 단체일까요?

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문에 '동창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칼럼을 쓰실 정도로 모교를 위해 발전기금을 내셨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동창회에 참석하시어 동창회에도 현재 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모임에 참석하시어 돈 많은 동문들에게 학교의 실정을 알리며 발전기금내도록 설득하시고, 동창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무보수 임원들이나 박봉에 달 정도로 근무하는 상근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사재까지 털어 동창회를 이끌고 계신 동창회장님들의 노고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같을 면데 점차 황폐해 가는 학교의 재정을 더 빨리 해소하는 길이라는 조언을 감히 드립니다.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광주지역 편의점 지역자금 역외유출 통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의 경우 당일 매출액을 매일 본사로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편의점 상장은 송금한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뒤 매달 월급처럼 다시 자금을 돌려받고 있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이 물건을 산 돈은 지역에서 한 번도 회전되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또 편의점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취급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물건만 팔고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지역에서 고용하는 것 외에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에서만 수많은 편의점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대부분 서울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지역민들이 얼마나 될까. 장만만 하고 돈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거나 지역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광주·전남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년대에 확대 보급을 위한 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고 거래지침을 공포하여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정부정책의 근간은 기존 발전회사의 대규모 집중적 전원 보다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 방식이며 2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인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100% 한 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타 지역에 견주어 많은 성과 바다를 보유하고, 풍부한 일조량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설비를 갖추면 누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다. 광주·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무한한 최적지이기에 강진군 남해에너지발전(주) 등 9개소 태양광발전시설 5.25MW와 쓰레기 매립지의 매탄가스를 이용한 광주광역시 북구 운동동 등

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앞 다퉈서 투자하는 현실을 보면 이 분야의 설비투자가 향후 경제성이 무궁한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확신한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전국토에 분산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적 보호협조설비를 첨단지능화하여 대비하고 있다. 주민공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어 200KW 이하 태양광설비는 시, 군, 구의 허가만으로 설치가능토록 간소화입법 예고중이므로 대단위 주거단지나 오지 산림지역 환경을 보유한 지자체가 민간발전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우호적 제도를 정착시키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효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의 견인차역할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관리처장>

옷 안 제품표시 객관적 기준으로 상세히 표시해야

통상 옷에는 '이 제품은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을 하십시오', '표백제나 효소제의 사용을 금합니다' 등의 취급주의 표시가 옷속에 붙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에는 물세탁을 해도 충분한 옷들이 있다. 굳이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의류제조업체들이 가정에서 세탁시 원단 불량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의류손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드라이클리닝 표기

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 '품질 및 취급주의 표시제도'는 취급 부주의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취지인 만큼 제품 결합을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옷에 드라이클리닝이 필요하다는 무조건적인 취급 표시를 하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알려주는 등 세부적으로 표시했으면 한다. ▲김민석·광주시 광산구 서북동

無等鼓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거품을 뜻하는 버블(bubble)이다. 버블은 한순간에 주가를 무너뜨린다. 폭등했던 주가 폭락으로 시작됐던 미국 대공황은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 벤처기업들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경제에서 버블이란 교환가치가 사용

보다 매우 높다는 '버블 세븐'이란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다. 지난 22일 폐막됐던 제 11회 강진 청자문화제 관람객이 지난해보다 100만명 이상 줄어든 40만128명이라는 통계가 기록된다. 관람객 집계에도 있어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되어 왔던 거품을 뺐 탓이다. 승용차 1대만 무조건 5명으로 계산하던 식의 관람객 부풀리기로는 내실있는 관

버블

광정착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단이다.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꼽히는 청자문화제가 이렇진대 여타 축제의 관람객 통계는 미투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거품을 빼야 할 분야가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어제 광주시교육감 결선투표와 해남·진도 국회의원 선거 등 전남 3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금품살포행위를 비롯해 능력보다는 정당 간판을 강조하거나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 등도 시급히 붕괴되어야 할 버블이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광정착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단이다.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꼽히는 청자문화제가 이렇진대 여타 축제의 관람객 통계는 미투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거품을 빼야 할 분야가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어제 광주시교육감 결선투표와 해남·진도 국회의원 선거 등 전남 3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금품살포행위를 비롯해 능력보다는 정당 간판을 강조하거나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 등도 시급히 붕괴되어야 할 버블이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F A X 2200-521 >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